

# 여야, 격전지 승리 위해 막판 총력전 돌입

### 與 “李대통령에 힘을” vs 野 “오만한 정권 심판”

### 민주, 서울·전북에 화력 집중... ‘내란 청산’ 부각

### 국힘, 보수 결집 시도... 중도층엔 견제 심리 자극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격전지에서의 승리를 위해 막판 총력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및 정부에 힘을 몰아달라면서 ‘정권 안정론’으로 표심을 계속 파고들면서 지지층을 향해서는 ‘내란 세력 청산론’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울산, 전북을 중심으로

막판 유세 일정을 조율 중이다. 서울은 선거 초반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가 접전지로 떠오르면서 정청래 총괄책임선거대책위원장의 선거 운동 피날레 장소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전북의 경우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위협에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현지 지사인 김 후보가 이른바 현급 살포 의혹

으로 후보 경선 직전 제명된 이후 사실상 ‘김관영 대 정청래’ 대결 구도라는 평가도 나왔다. 실제 송태규 전북 익산갑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정 위원장의 전북 방문을 만류하는 등 ‘반청’ (반정청래) 민심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곳은 전북이 지역구인 한병도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계속 ‘전담 마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후반전으로 갈수록 경합지 위주로 이재명 대통령을 선거 전면에 부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 중도층 등을 향해 “일 잘하는 이 대통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 중이다.

최근 급등한 코스피도 여당이 중도층 민심을 공략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판을 계기로 보수 총결집을 시도하면서 중도층을 향해서는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을 사수하는 동시에 서울, 충남 등에서도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상태다.

수도권 중 경기도나 인천은 판세가 어려운 상태이고 중원 지역도 전반적으로는 쉽지 않은 모습이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번에도 지난

20일처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별도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강성 우파 성향인 장 위원장은 대통령 공세의 선봉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며 후보는 장 위원장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선 결과로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이 대통령의 ‘셀프 공소 취소’를 막아야 한다는 ‘심판론’을 띄우며 보수 표심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적극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을 투표소로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요트 타고 투표 참여 캠페인 6·3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31일 목포 평화광장 앞 해상에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대형 돛을 단 요트에 승선해 투표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투표 포기, 국민 속이는 자들에 기회 주는 것”

### 李대통령, SNS로 또 투표 독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투표를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라며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

하는 것”이라는 경구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어 국민들을 향해 “투표에 적극 참여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권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주권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달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만을 위해 사 용할, 충직하고 유능한 이들을 찾아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선출된 공직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

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다”며 “투표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 선출된 그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모습이 될지, 세상을 파괴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이던 지난 30일에도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투표 참여를 호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 국회 하반기 원구성 상당 기간 공백 우려

### 여야, 5일 의장단 선출 합의 불구

### 지방선거 결과 따라 변동 가능성

### ‘법사위’ 등 위원장 배분도 난제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이번에도 상당 기간 공백 상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6월5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합의했으나 6·3 지방선거 결과와 맞물려 정국 상황이 유동적인 데다, 상임위 원장 배분을 놓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원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19일 6월5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합의했지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매우 유동적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 선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내용에 휩싸이면서 원 구성 문제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5일 의장단을 선출한다고 해도 원구성 협상의 최대 난제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남는다.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여야가 어디를 차지할 자에 대해서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큰 뇌관은 본회의로 법안이 올라가는 최종 관문인 법사위다.

국민의힘 송연석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전통대로 1당과 2당이 나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가는 만큼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법사위는 이전처럼 제1야당

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법사위원 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이미 선을 그은 상태다.

민주당의 하반기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이자 청킹 검찰 개혁과 맞물려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라는 점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 양보가 불가한 이유다.

민주당은 나아가 전반기 국회 때 야당이 맡았던 재정경제기획위, 정무위 등 경제 관련 상임 위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경제 관련 주요 입법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하반기에도 상방기와 마찬가지로 경제 및 외교·안보 부처 등을 중심으로 최소 7개의 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위원장 배분 문제는 일단 야당과 협상을 통해 정한다는 기조다.

이에 따라 의장단 구성과 함께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대립이 깊어질 경우 원구성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원구성 협상은 13대 국회부터 22대 국회 전반 기까지 평균 42일 정도 소요됐으나 최장 125일(14대 전반기)이 걸린 적도 있다.

민약 협상이 계속 지연될 경우 민주당 내에서는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다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이었던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때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하자 18개 상임 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적이 있다. /김진수 기자

## 이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영남, 영호권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한 번에, 한 눈에, 한 손에!  
1천만 고객이 선택한 NH국민카드!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확인하세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스마트한 카드!**

올바른 NEW HAVE 카드

- 기본예금과 이자 0% 1년 무이자 대출
- 신용 한도 2%~10% / 저리 1%~1.5%
- 국세공과금 연회료 무료 서비스 혜택
- 농협 인센티브, NH카드, NH카드, NH카드

**농사·생활·여행 걱정 없이, 하나로 완성!**

**NH농비보험**

- 농사·생활·여행 걱정 없이, 하나로 완성!
- 20~80세, 60세 이상도 가입 가능
- 100세까지 비정규직(해당지역 가입자)
- 경신형 담보 제공
- 첫날부터 보험 및 첫날부터 보험
- 가입자 1% 할인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경·해외송금을 말하다**

- 환전 | 해외여행 | 가까운 서광주농협에서 편리하게
- 해외송금 | 안전한 서광주농협 해외송금으로 안심하고 보내세요

**농업인의 내일을 키우는 금융 농협이 함께 합니다.**

- 농업인 전용 금융지원
- 농지담보대출 특화상품
- 농지대자금 대출인도 최대 80%
- 부유 농지 활용 지원
- 영농·생활자금 지원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기아지리지점 062)385-4977~8	온암백산지점 062)529-5335~6	비 들 지 점 062)381-1971~2	등 립 지 점 062)513-8521~3	지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동림아니로지점 062)531-774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동 운 지 점 062)528-2640~2	용 신 지 점 062)526-022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아니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영동센터지점 062)361-4472~4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와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지역 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